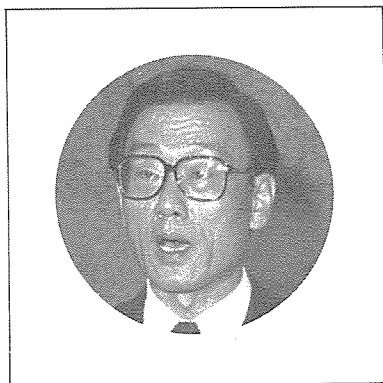


“國民의 理解와 同意를 바탕으로 합리적인 科學技術行政 펼칠터”



盧在鳳 국무총리

존경하는 權彝赫 會長님, 科學技術團體 總聯合會 會員여러분, 全國의 大學, 研究所, 産業體 등에 奉職하고 계신 科學技術人 여러분.

辛未年 새해를 맞이하여 오늘 우리나라 科學技術發展의 주역이신 여러분과 新年 人事를 나누게 된 것을 커다란 기쁨으로 생각합니다.

먼저, 어려운 여건하에서도 科學技術立國을 위해 헌신하고 계신 科學技術人 여

러분의 勞苦에 충심으로 경의를 표하며, 새해에도 여러분 모두 하시는 일들이 뜻대로 이루어지고 家庭에 건강과 행복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는 지금 격변하는 國內外 情勢속에서 안으로 民族의 力量을 모으고 國力의 기반을 공고히 하여 國際舞臺에서 우리나라의 位相을 한층 더 높여야 할 중요한 시점에서 있습니다.

지금 國際社會는 정치적으로는 戰後世界를 東西로 갈라놓았던 이념의 장벽이 무너지고 和解와 協力の 새로운 질서가 胎動하고 있으나, 경제적으로는 새로운 國家利己主義와 保護貿易主義가 팽배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특히 세계 모든 국가가 國家發展의 성패를 좌우하는 科學技術開發에 진력함과 아울러 대외적으로는 날로 技術保護의 장벽을 높게 쌓아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처럼 國土가 협소하고 資源이 빈약하며 人口가 조밀한 나라가 國家發展을 지속하기 위해서는 획기적인 科學技術振興을 이룩하는 것 외에는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음은 너무도 자명한 사실입니다.

그동안 政府는 科學技術革新을 통한 經濟發展戰略을 세우고 이를 위해 많은 투자와 집중적인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21세기까지 우리의 科學技術水準을 세계 7位圈의 先進國으로 진입시키기 위해 〈科學技術諮問會議〉를 설치하고 〈基礎科學振興法〉을 제정하는 등 적극적인 科學技術開發政策을 강력하게 추진해 왔습니다.

이러한 政府의 다각적인 施策과 科學技術人 여러분의 헌신적인 노력으로 이제 우리나라의 科學技術水準은 일부분야에 있어서는 先進國水準에 접근하는 등 괄목할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전체적으로는 先進國과 큰 격차가 있다는 사실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이제부터는 우리도 '남의 뒤를 따라가는 模倣段階'를 하루 속히 벗어나, 特定技術, 特定分野에 있어서만은 독자적인 技術과 製品을 확보하여야 하겠습니다.

새해를 맞아 政府는 科學技術振興과 革新을 위해 다음과 같은 科學技術政策을 적극 추진해 나가고자 합니다.

무엇보다 먼저, 國際競爭力을 높이기 위한 産業技術開發과 아울러 環境, 保健, 交通 등 福祉측면에서의 技術開發, 그리고 經濟社會 高度化에 발맞춘 情報産業의 육성 등에 더욱 힘써 나갈 것입니다.

또한 大德研究團地 등 地方 科學産業研究團地 건설을 본격적으로 추진하여 지방화 시대에 부응하는 地域技術事業을 적극적으로 활성화해 나갈 것입니다. 그리고 尖端科學技術 移轉을 위한 全方位 科學技

術外交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美國, 日本 등 기존 우방과의 科學技術協力과 병행하여 基礎科學基盤이 두터운 蘇聯과도 체계적으로 협력을 추진하는 등 全世界를 상대로 하는 科學技術外交를 전개하여 世界尖端의 科學技術을 흡수하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國民의 理解와 合意에 바탕을 둔 합리적인 科學技術行政을 펼쳐 나가겠습니다.

科學技術의 진흥은 國民의 理解와 呼應 없이 이루어지기는 어려운 것입니다. 國民 모두가 科學技術의 중요성을 올바르게 인식케 하는 弘報活動을 체계적으로 추진하여 科學技術의 國民的 基盤을 확충해 나갈 것이며, 各 研究開發主體와 政府機關間에 상호유기적인 協力體制를 갖출 수 있도록 해 나갈 것입니다.

科學技術人 여러분!

科學技術振興은 결코 政府의 의지만으로 되는 것이 아니며, 우리나라 科學技術界 指導者이신 여러분께서 研究現場에서, 産業現場에서 적극적인 지원을 해주시고 實踐力으로 뒷받침해 주실때 가능한 것이라 생각합니다. 새해들어 우리에게도 국가적으로 당면한 과제가 많습디다만, 科學技術向上을 위한 우리의 노력은 더욱 倍加되어야 할 것입니다.

앞으로 政府와 科學技術界는 물론이고 經濟界·企業 그리고 大學 등 各界가 합심하여 힘을 모으고 더욱 분발해야 할 國家的 課題가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리의 미래가 科學技術振興에 달려 있다는 國家的 命題를 다시한번 상기하면서, 우리나라 科學技術界 指導者 여러분 모두의 건승을 다시 한번 기원하는 바입니다.